

13일 임기 마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 집권위해 벽돌 한장이라도 쌓겠다”

-원내대표로서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아쉬움은 없는가.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정체성을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각료 후보자 5명을 잇달아 낙마시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집시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의 입법을 막아내며 당의 정체성을 지켰다. 원내대표 취임 당시 10% 초중반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현재 30%대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막지 못한 것이 ‘쓰라린 추억’이다. 사상 초유의 여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한·유류협약(EU)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도 마음에 남는다.
 -한나라당도 원내대표에 황우여 의원을 선출하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중립적이거나 개혁적 성향으로는 볼 수 없다. 민주당에 현재 요구되는 것은 ‘치열함’이다. 민심의 바다에 들어가 더 노력해야 하고 국민에 희망을 줘야 한다. 치열함은 절박성에서 나온다. 민생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부적절 각료 후보 5명 걸러내
 당 정체성 지켜내 큰 성과
 한-EU FTA 처리는 아쉬워

남북관계 복원, 민주주의 회복 등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지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전남 민심의 정치적 DNA는 특별하다.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한 시대 이상을 앞세운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을 통해 야권연대를 하면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총선 낙관론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혼을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특히,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공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및 야권통합론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도 많다.
 ▲‘호남에서 몇 석 양보해야 한다’는 산술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적 관점에서 야권연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 등 호남은 정치적 바람을 전국적으로 몰아치게 하는 곳이다. 감동이 불결치는 야권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각 당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이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 때로는 잔인하고 단호한 결정도 필요할 것이다.
 -‘김-메이커론’과 함께 당권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내대표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뒤라 말하기는 그렇다. 하지만 나는 핵심적인 위치에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보호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한 장의 벽돌이라도 쌓겠다는 입장이다. 나에게 기회와 역할이 주어진다던 최선호를 다하겠다. 당권 도전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과 나이, 과거 이미지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반응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 대통령도 호남이 없었다면 집권하지 못했다.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자긍심이 돼야 한다. ‘호남당’ 운운하는 것은 자기 확대다. 영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탈 영남’을 주장하는 것 봤느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만큼 짧은 세대와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트위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지만 정치 할 수는 없다. 어떠한 능력과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다.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돌아설 수 있는가.
 ▲목포시민의 열정적인 지지가 나의 정치적 힘이다. 목표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보는 적도 없다. 말도 되지 않는다.
 -한·EU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한·EU FTA는 각종 독소조항이 있는 한·미 FTA와는 다르다. 사상 초유의 여야정 합의와 함께 각종 보완대책도 마련됐고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 농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연대 등을 감안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불참하게 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도 반대했지만 두 당은 원천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결론은 아쉽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면 가결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600만 명의 소상공인, 300만 명 농민의 피해를 막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 인맥은 소외됐다. 당을 떠나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청와대에 조언한다면.

호남 민심의 정치적 DNA 특별
 총선·대선 ‘감동적 공천’ 선행
 이길 후보 중심 야권연대 필요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은 묘한 ‘선민의식’이 있다. 이는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 사람 마음대로 쓰겠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장관, 차관, 1급, 공기업 인사를 보라. 호남은 물론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백악이 무효한 상황이다. 결국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치인 박지원의 ‘동력’은 무엇인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삶의 철학이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에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현재의 시대정신, 시대적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민생과 평화라고 본다. 고물가, 실업난과 전세값, 대학 등록금 등으로 민생은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올바른 정책적 대처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의 평화도 없으며 경제적 발전도 한계가 있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호남 푸대접을 넘어 인사 및 예산의 전횡,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던 민주당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 힘을 보태달라.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정권교체로 성원에 보답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방공기업 대표 75% 공무원·정치인 출신”

지방공단 이사장 91%
 경영부실 부작용 우려

퇴직된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출신 등이 지방공기업 대표 자리를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어 경영부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중 공직인 곳 등을 제외하면 127곳 가운데 95곳(74.8%)의 사장이나 이사장이 지방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 50곳 중에 25곳(50%)에 퇴직된 지방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 출신 등이 사장으로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김기춘 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최근 임명됐고 부산교통공사는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김인환 전 대구시 수성구 부구청장이, 인천메트로는 이광영 전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김광배 전 충청남

도 자치행정국장이, 광주도시공사는 김영진 전 광주시 건축도시국장이 이끌고 있다.
 전국 지방공단의 경우 퇴직 공무원과 정치인이 77곳 중 무려 70곳(90.9%)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이용선 전 서울시 재무국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대표가 공직인 성복구를 제외하고 23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20곳을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과 대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광주시환경시설공단, 대전시환경시설공단, 울산시설관리공단 등은 모두 해당 지자체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지방 공기업 대표를 뽑을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재홍 선문대 교수는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경영 전문가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해당 지자체장과 유착돼 있어 경영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용훈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 박 원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

했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12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행정에 매우 밝고 법리와 재판 실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3국 순방차 추대통령 8일 출국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해 8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독일, 덴마크,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첫 방문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크

리스티안 볼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11일 덴마크를 국빈 방문, 마그레테 2세 여왕과 만찬을 하고 12일에는 라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선한 해풍! 게르마늄 황토! 깨끗한 지하수!
무안 황토 양파

무안·신안국회의원 이윤석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석원	농협 무안군지부 지부장 이철건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 나상욱	삼향농협 조합장 나용석
전남도의회 의원 양영복 의원 정영덕	무안군산림조합 조합장 최옥수	무안농협 조합장 노은준	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전영남	무안군장애인협회 회장 김계옥